市政新聞

(2026년 8월 6일 목요일 15면)

손병화 송파구의장, 북한이탈주민의 날 '삼계탕 나눔'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는 지난달 3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가 주관한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통일대사와 함께하는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따뜻한 온정을 더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가 혹서기 무더위와 낯선 정착 환경 속에서 애쓰고 있는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성스레 마련한 자리다. 현장을 찾은 손병화 의장은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해 어르신 및 주민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정다운 안부와 격려를 전했다.

손 의장은 정성껏 준비된 삼계탕을 전하며 "오늘 대접해 드린 든든한 삼계탕 한 그릇이 낯선 환경 속에서 터전을 다져가시는 주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이자 새로운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7월31일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주요 중점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구 집행부 및 관계 유관기관들과 촘촘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송파구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홍춘성 기자 / roff1116@naver.com